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지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김훈테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요한복음 12:44-50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됩니다.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502장 / 빛의 사자들이여 (통일찬송가 259장)
	현신과 나눔
현신과 나눔	봉 헌 / 김태성 집사, 최선운 집사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삶과 세상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읽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서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구은강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열왕기하 18:7-17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히스기야

미국의 가정사역자인 데이브 윌리스(David Willis) 목사는 최근 처치리더스닷컴에 '남편이 아내를 향한 존중감을 표현할 수 있는 8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 1. 오직 아내만을 바라보라**
남편은 머리를 멋있게 손질한 모델이나 지나가는 여성들과 아내를 비교하지 않으므로써 아내에 대한 존중감을 보여줄 수 있다. 남편들이 오직 아내만을 바라볼 때, 아내는 안정감과 더불어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 2. 아내의 꿈을 격려하고 지지하라**
남편은 아내의 꿈을 중요하게 생각함으로써 존중감을 보여줄 수 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남편은 아내가 꿈과 희망을 성취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주어야 한다.
- 3.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
남편이 열심히 일할 때, 이는 아내에 대한 존중감을 전달한다. 게으른 남편은 아내(또는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존중감을 전달할 수 없다.
- 4. 집안일을 도우라**
집안일들은 각각 다르다.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남편도 이를 도울 수 있다. 설거지나 빨래하기 등은 아내를 향한 존중감을 보여줄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이다.
- 5.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그녀의 말을 들으라**
남편이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아내와의 소통이 필요하다. 남편은 휴대폰이나 TV 를 잠시 꺼두고, 아내와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고, 항상 아내에게 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아내에 대한 존중감을 보여줄 수 있다.
- 6.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라**
주기적으로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아내에 대한 존중감을 보여줄 수 있다. 남편은 취미생활과 경력을 위한 시간 외에는 아내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어야 한다.
- 7. 끊임없이 그녀를 좇으라**
대부분의 남성은 데이트 할 때에 굉장히 많은 정성을 쏟고, 결혼한 이후에는 게을러지고 일관성이 없어진다. 남편이 끊임없이 삶의 모든 여정에서 더 나은 모습을 유지함으로써 아내에 대한 존중감을 보여줄 수 있다.
- 8. 그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사랑은 누군가가 스스로를 믿기 어려운 때에도 그를 믿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말, 행동, 그리고 존경을 통해 그녀를 세워주라. 당신의 사랑이 무조건적이고 흔들림 없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이것이 그녀에게 자신감을 줄 것이다.

찬 주간의 기도

“온 교우가 성경 읽기 운동에 참여하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로 깊은 영적 성장이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시험을 능히 이기는 강건한 영적 군사가 되며, 모든 것을 능히 품고 용납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EM PASTOR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전화 8-4-4-8888-20)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사랑을 돌리고,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사랑을 돌린다.”



교회와사역

찬양의 세대차이 극복하기

1892년 미국 감리회에서 우리나라 인천으로 파송된 존슨 선교사와 로즈 와일러 선교사에 의해 편집된 '찬미가'는 27편의 찬송을 모아 악보 없이 가사만 실어서 만들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찬송가로 알려져 있다. 이후 찬양가(1894년)에 이어 찬미가의 개정판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모든 예배에서 찬송가로 함께 찬양해 왔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교회의 핍박 속에 찬송가를 부르며 순교 신앙으로 교회를 지켰다.

이후에는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잠시의 평안도 없이 남북이 분단되고 찾아온 보릿고개는 광야의 인생을 목상하며 오히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등을 찬송하며 매일 새벽을 깨우게 했다. 교회는 1970년대를 지나며 서서히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찬송가는 우리 60대 이상 어른들에게는 술한 인생의 흔적이 묻어 있는 삶의 고백이 되었다. 이것이 어른들이 교회 예배에서 찬송을 좋아하며 고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찬송가에 대한 이런 삶의 흔적이 없다. 옛날 곡조와 삶의 베풀어 끝에서 부르는 것 같은 진지함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 나름 어른들과 함께 호흡하려고 현대적인 음악으로 편곡도 해 보지만, 사실 서로의 공감대가 너무 멀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편곡된 찬송가마저 어른들은 잘 따라 부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찬송가에 대해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필자는 어른 세대에게 찬송가의 곡조를 절대화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젊은 세대에게 찬송가 가사에 대한 깊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먼저 어른 세대가 찬송가 곡조를 절대화하면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자. 찬송가의 일부는 그 곡조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세상 나라의 국가나 이성 간의 사랑을 노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곡들이 있는데, 이는 교회에서 쓰는 가사는 있지만 곡조가 없는 찬송들에 대해, 세상 노래 곡조를 차용하여 가사를 붙여 불렀기 때문이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는 현재 독일 국가이고, '피난처 있으니'는 영국 국가이며, '하늘 가는 밝은 길이'는 이성 간의 사랑을 노래한 스코틀랜드 민요 '애니 로리'의 곡을 가져온 것이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는 영화 '예수'의 주제곡이었고, '마귀들과 싸우지라'는 미국 소방대원 행진가였다. 이처럼 찬송가에서 사용되는 곡조는 세상 곡조를 차용한 것들이 있으므로, 지금 불려지는 현대의 찬양곡에 대한 곡조만을 일방적으로 '세상 곡조'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반면 젊은 세대는 찬송가 가사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 한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의 작사가인 벤자민 스몰크 목사는 당시 유럽의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 사이의 종교전쟁이었던 '30년전쟁(1618-1648)'이 끝난 후 전쟁 후유증으로 흑사병이 돌았을 때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았다. 열심히 심방을 돌고 집으로 돌아온 스몰크 목사의 집에는 불이 났고, 이미 죽은 두 아들의 시신만 남게 됐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라고 고백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젊은 영혼들의 가슴에 새겨질 때, 찬양을 부르는 태도와 은혜가 달라질 것이다.

필자는 찬송가학을 학교에서 강의하며 이런 찬송가의 배경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수업이 처음 시작될 때 소극적이던 학생들이 수업 끝날 때에는 이를 눈물로 부르던 모습이 생각난다. 분명 젊은 청년들은 의미를 잘 모른다. 가르쳐주지 않았고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그들에게 찬송가의 역사적 가치와 전통적 권위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한 장 한 장에 담겨 있는 의미를 말해 주는 것이 더욱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 백성훈 목사 『팀사역의 원리』 저자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 교회는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결실의 달 10월의 마지막 주일, **선교주일**입니다.

▶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그리고 가족, 성도와 이웃에게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1.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2. 박윤숙 선교사의 코스타리카와 중남미의 2기 사역을 위한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3. 다음 주일 (11/4) 성찬사역팀이 모임을 가집니다.
4. 지난 주일 (10/21) 정기제직회를 가졌습니다. 각 사역위원회와 사역팀은 2018년 사역들을 점검하며 결산합니다.
5. 점심 친교 후 교육위원회와 학부모 간 대화 모임이 있습니다. 학부모 뿐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6. 17주간 성경 일독운동이 Oikos 사역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서로 격려하며 점검해주시다.
7.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웃, 친구와 가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세상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삶으로 복음을 나눕시다.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는)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섬김이

주일에배기도	10/28	11/4	11/11	11/18
	김훈태집사	정줄리권사	김태성집사	정홍렬목사
금요일배기도	11/2	11/9	11/16	11/23
	구은강집사	김태성집사	정줄리권사	김훈태집사
주일헌금위원	10/28	11/4	11/11	11/18
	김태성집사/최선운집사	박진성집사/오정은집사		
주일안내위원	10월	11월		
	구민집사	최내권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 요한복음 12:1-8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과 영혼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 받은 은혜를 갚으려 마르다는 자신이 잘하는 저녁 만찬을 기쁨으로 준비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후 여전히 같은 직업, 사업, 인생을 살지만, 무엇을 하든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면 거룩한 일이 된다. 성직과 세속직이 따로 있지 않은 이유이다. 또한 마리아는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께 드렸다. 옥합이 깨어져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졌고, 예수님의 발로 흘러내렸다. 이에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다. 최고의 존경과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고, 칭찬과 축복을 받았다. 우리도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 요한복음 12:44-50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 밝은 빛이 비추어지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을 향해 어떤 빛을 비추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 요한복음 12:44-50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온갖 죄악과 불순종, 그리고 그에 따른 징계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빛이라고는 조금도 찾아 볼 수 없을 때,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둠 가운데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빛을 싫어하게 됩니다. 눈이 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에 너무나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계속 어둠 가운데 있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죄악 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빛을 거부한 또 하나의 이유는 빛 가운데 나오면 자신들의 모든 더러움과 추악함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서는 아무 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빛이 되신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심판의 빛이 아니라 구원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어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씻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때가 마지막 날입니다. 그 때가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면 결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빛이 세상으로 반사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는 모습을 통해 세상을 밝게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빛, 소망의 빛,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이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섬김의 교회

J E S U S L O V E S Y O U

섬김의 교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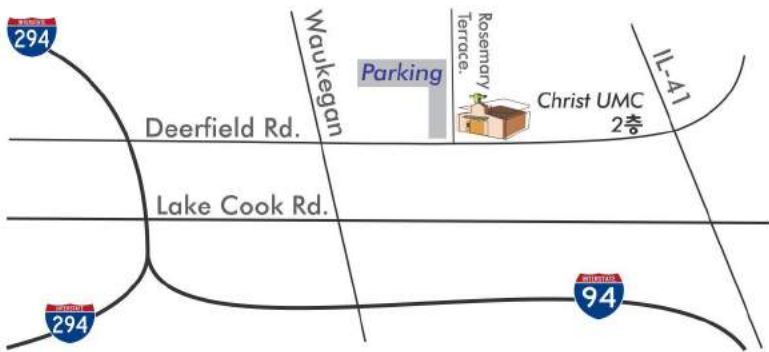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30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5:40 AM
SATURDAY 6: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섬기는 목회자 : 김정배 목사
친유, 회복, 나눔

October 28, 2018

결실의 달
선교주일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누가복음 11:34~35